

북경~심양간(경심선) 고속철도건설 첫 발 떴다!

- 중국에 13번째 사무소 개설 -

공단(이장경 경영팀)은 중국 북경에서 심양을 잇는 경심고속철도(전노선 698km)구간 중 공단이 주관하는 요녕성 길리3공구(78km)의 사무소를 요녕성 조양시 현지에 개설하고 지난 7일 개소식을 열었다.

개소식 행사에는 중국 고속철도 건설공사 발주처와 중국 길리사, 시공사 등 많은 관계자가 함께해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기원했다.

행사장에서 발주처 관계자는 공단이 계약체결 이후 신속한 인력투입과 사무소 개설은 물론, 현재 한창 건설 중인 레이코 공장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시행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한발 빠른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또한 철도 개도로 일련된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보다 공단을 신뢰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공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.

강 이사장은 "하드선 등 중국에서 수행하였던 12개의 사업에서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경심고속철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"이라며 "양국이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 관련 사업에서 지속적인 협력으로 21세기 글로벌 교통혁명의 동역자 관개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"고 제의했다.



남미 철도사업 최초 수주!

- '파라과이 경전철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용역' 계약 체결 -

시설사업본부(본부장 박인수는)는 지난날 3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파라과이 정부의 사립대행기관인 아순시온공과대학(FUNUA)과 「아순시온~으빠과라이간(244km) 경전철사업 타당성조사용역」 계약을 체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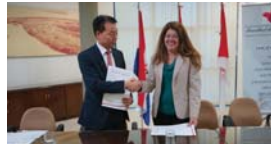
공단은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중국에 이어, 올해내 네 번째 해외철도사업 수주 성과를 올렸으며 파라과이 경전철 사업은 수도권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교통 지원을 위해 파라과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파라과이 철도 건설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동안 한국재향학단(KOICA)과 공단은 '파라과이 사업은 수도권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교통 지원을 위해 파라과이 정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파라과이 철도 건설사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과 아순시온 대학 및 파라과이 철도운영기관 간 MOU를 체결해 향후 이 지역 철도사업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.

본부 관계자는 "파라과이 정부에서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 설계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도 공단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전하며 "앞으로는 국내 건설 및 자재업체들이 해외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도 역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"고 밝혔다.

[용역개요]
- 용역명 : 아순시온~으빠과라이간(244km) 경전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
- 계약금액 : 109만USD
- 용역수행기간 : 5개월(2014. 8월 ~ 12월)

(파라과이 경전철 사업 노선 개요)



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 노반공사 본격 추진

- 올해 8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, 하반기 착공 -

건설본부(본부장 김재홍)는 서해선(홍성~순안) 및 전라선 등과의 연계를 통한 서해선의 역할, 물류 운송효율 증대를 위해 장항선 개량2단계 철도건설사업의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노반공사를 본격 추진한다.

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사업은 총 9,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곡선선로를 직선화하고 평면안선율을 입체화해 고속화(250km/h)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32.2km이다.

본부는 이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보령시 구간(보령~간지, 14.2km)을 '14년 하반기에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홍성군 구간(간지~주목, 18.0km)은 노선 및 정거장 위치 변경 인허가를 올해 중에 해소해 '15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.

본부 관계자는 "2020년 말 장항선 철도건설 사업이 완공되면 서해안권의 물류 운송 효율성 증대 효과뿐 아니라, 충청권 철도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

호남고속철도, 역 중심으로 보다 편리한 연계교통체계 구축

- 역 중심으로 보다 편리한 연계교통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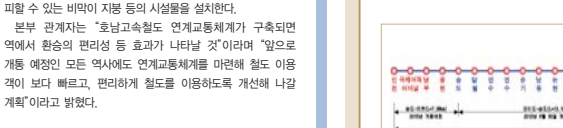
건설본부(본부장 김재홍)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다른 교통수단과 더욱 편리하게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'호남고속도역 역사 연계교통 구축계획'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'연계교통 구축계획'은 철도역을 중심으로 연계교통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, 공사 및 해당 지자체와 연계교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의역을 개선하는 방안이다.

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▲역사 인근도로 건설 ▲철도역 접근도로의 도로표지판 정비 ▲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배차간격 및 노선 조정 ▲철도역에 시외버스 승유도록 개선 ▲택시 영업구간 조정 등이다.

또한 역사와 접근교통시설의 최단 거리 연결을 위한 교통편경(버스, 택시, 승용차 정류장)을 정비하고 정류장에 눈, 비 등을 피할 수 있는 비막이 지붕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.

본부 관계자는 "호남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가 구축되면 역에서 환승의 편리성 등 효과가 나타날 것"이라며 "앞으로 개통 예정인 모든 역사에도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해 철도 이용객이 보다 빠르고,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

설계VE 통해 2072억원 절감

- 新기술·新공법 적극 활용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-

KR연구원(원장 이동렬)은 경제성검토(VE, Value Engineering)를 통해 현재까지 2,07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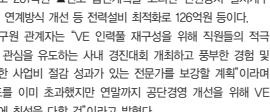
이는 올해 사업비 절감목표인 2,031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로 직원들의 다양한 설계VE 아이디어 발굴 노력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.

설계VE 제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'설계'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'에 의거,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가능 : 대안별 검토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.

연구원은 설계관계자들과의 Kick Off 회의를 개최해 VE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시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업비가 큰 도로분야 설계사업에 대해 상반기 VE 집중시행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.

포항~삼척 철도건설 등 VE가 시행된 16개 사업의 주요 절감 내용은 ▲지역주민 편의향상을 위한 교량하부 통과 높이 확보 등 교량형식 변경으로 534억원 ▲터널 내 자연보강 및 굴착공법을 개선하여 486억원 ▲공용 기고 경간장 조정, 기시설 공법 변경으로 353억원 ▲인공굴림의 발생원 유증개척 및 사토처리 공유로 261억원 ▲선로 급진계획을 고려한 전횡형식 설치개수 조정, 연계방식 개선 등 전역별 최적화로 126억원 등이다.

연구원 관계자는 "VE 인력을 재구성을 위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사내 경제단체 개최하고 풍부한 경험 및 우수한 사업비 절감 성과가 있는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"이라며 "목표를 이미 초과했지만 연말까지 공단경영 개선을 위해 VE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

철도노선별·사업별 회계 관리로 책임경영 강화

- 구분회계 도입으로 보다 투명한 재무관리 시행 -

기획재무부는 고속철도 건설로 발생한 금융부채 17조2500억 원의 경우·호남·수도권 노선별로 구분하고 사업별, 노선별 수익 구분을 통해 사업단위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구분회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.

* 구분회계란 단위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체계로서, 부채구조 확인의 사업별 구분 가능해짐에 따라 각각의 사업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구분 및 사업별 책임경영 강화 가능

본부는 구분회계 사업단위를 경우·호남·수도권 고속철도, 일반, 광역철도 및 수직사업 등 철도건설과 자선관리, 해외사업, 기타 역세권개발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. 8월 중 시스템 개발 공문을 발주하며 2014년도 회계결산에는 노선별·사업별별 구분회계를 제시할 계획이다.

본부 관계자는 "이번 구분회계제도 도입으로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라는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및 해외사업 등 지구 노력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부채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공단의 구분회계 사업단위(원)

철도건설	자산관리	해외사업	기타사업
- 고속철도 (경부·호남·수도권) - 일반철도 - 광역철도 - 수직사업	- 사업평가 - 경영평가	- 해외사업	- 역세권 개발 - 기타

SNS서포터즈 '레일싱어' 1기 모집

홍보실(실장 신철수)은 공단의 주요사업과 대내외 이슈 및 활동들을 홍보하고 철도의 장점을 함께 공유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(서포터즈) '레일싱어' 1기를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모집했다.

'레일싱어'는 전국의 대학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및 철도호인 등 철도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류를 접수 받았다.

'레일싱어'로 선정된 20명은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개성시, 기공식 등 행사에 참여해 철도건설현장 취재를 비롯한 공단 블로그 및 SNS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예정이다.

서포터즈에게는 일정한 활동비가 지원되며 그 중 우수 서포터즈를 선정해 시상할 표창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수여할 방침이다.

서포터즈 선정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8월 13일에 발표하며, 공단 페이스북(https://www.facebook.com/KRway) 및 트위터(https://twitter.com/KR_network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